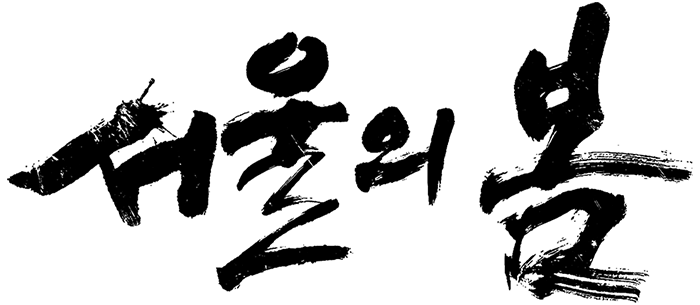
****

**11월 22일 개봉 확정!**

**인터내셔널 포스터 & 론칭 예고편 공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2.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11월 22일 개봉을 확정했다. <서울의 봄>은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을 비롯한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 과 함께 김성수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감을 자아낸다. [감독: 김성수 |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

**1979.12.12 서울.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권력을 향해 진군하는 반란군 vs 혈혈단신 반란군에 맞선 진압군**

**나라를 삼키려는 자 vs 나라를 지키려는 자, 일촉즉발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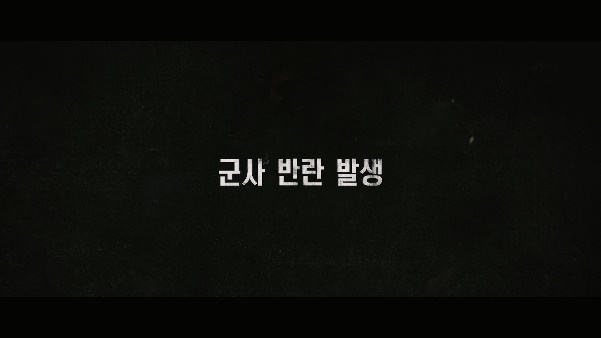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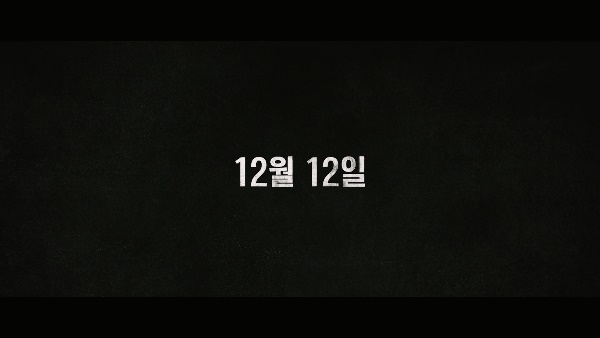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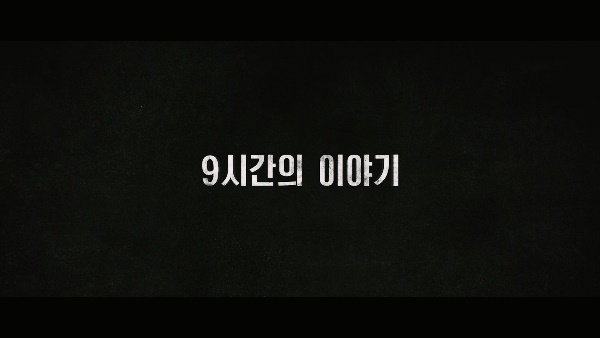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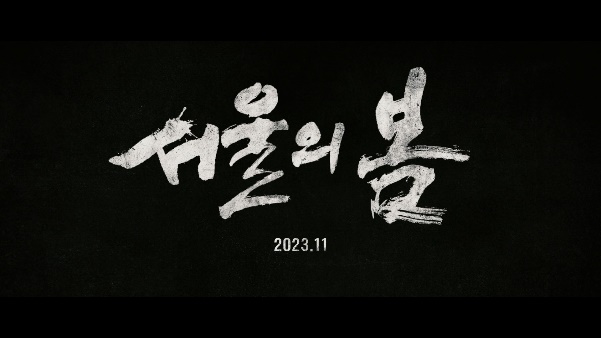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각종 글로벌 필름 마켓에서 먼저 공개된 인터내셔널 포스터는 각각 서울 도심 한가운데 아군과 국민을 향해 전선을 구축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을 비롯한 반란군의 모습과 홀로 반란군에 맞선 진압군 측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뒷모습을 담아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

10.26 사건 직후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과 달리 각각의 포스터 속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의 풍경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상황을 보여줘 <서울의 봄>에서 그려질 그날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40여 년간, 철저하게 숨겨졌던 9시간의 이야기**

****



인터내셔널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서울의 봄> 론칭 예고편은 영화 속 12.12 군사반란의 주축인 전두광의 모습을 담았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전두광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표정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첫 번째 베일을 벗은 <서울의 봄>에 가장 궁금증이 더해지는 이유는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첫 번째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감춰졌던 그 운명의 9시간에 대한 궁금증은 <서울의 봄>이 보고 싶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여기에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가는 캐스팅은 영화 <서울의 봄>에 믿음을 더한다.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전두광을 한국 배우 중 가장 강렬한 연기력과 존재감의 배우라 해도 과언이 아닐 황정민이 연기한다. 신군부에 홀로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군인정신에 충실했던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을 비롯, 참모총장 정상호 역에 이성민, 9사단장 노태건 역에 박해준, 헌병감 김준엽 역에 김성균 배우가 열연해 빈틈없는 출연진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봄>은 <비트>부터 <아수라>까지 실감나는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였던 김성수 감독의 신작이다. 그리고 10.26 사건을 한국 영화 최초로 사건 주체의 시각으로 다루며 한국 현대사 소재 영화의 새로운 장을 보여줬던 <남산의 부장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10.26 사건 직후 시점에서 다시 한국의 운명을 바꾼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 <서울의 봄>은 11월 22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던 12.12 그날 밤, 9시간의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INFORMATION**

제목: 서울의 봄

영제: 12.12: THE DAY

감독: 김성수

출연: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외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

개봉: 2023년 11월 22일

**영화<서울의 봄>에 대한 문의는**

**앤드크레딧&credit 02-543-19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